

■ 법률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종의 한시성 (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선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KOREA

시카고 중심가에서 약 한 시간 남서부로 달려가면 '졸리엣' 라는 작은 도시가 나온다. 그곳의 남쪽 옥수수밭인 농촌을 지나면 <아브라함 링컨 기념 국립묘지>가 있다. 여기는 참전용사나 군복무를 한 퇴역군인들이 영면할 수 있는 자리이다.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장례를 상담하다 보면 "나는 참전용사인데 한국 국립묘지에 묻힐 자리가 있다" 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 미국인들도 본인들이 군복무를 하였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가끔 국립묘지에 하관하러 간다.

갈색 대리석으로 잘 조성된 입구를 지나면 정중앙에 빨강과 흰 줄로 바탕을 이룬 성조기가 바람을 타고 50 벌들을 날리며 깃대의 중앙에 계양되어 있다. 서서히 시야를 가득 채우는 무릎 높이의 일정한 회색 화강암 비석들은 녹색의 잔디 위에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사열하듯이 세워져 있다. 앞에서 보고 옆으로 보고 또 대각으로 봐도 정확한 직선이다. 방문객의 마음을 압도하는 존엄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경외심으로 젖는다. 숭고한 부름에 순종하였으며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려고 생명을 국가에 헌납한 미국 젊은이들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똑같은 모양의 직립된 비석들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국가의 부름도 평등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평등하며 고귀한 죽음도 평등하다. 비석에는 장교와 사병의 구분이 없고 학벌도 경제력도 가문의 자랑도 없다. 땅자의 이름과 계급 소속(육·해·공·해병) 참전 국가,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만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눈여겨 보면 KOREA 가 많이 있다. LA 근교 Riverside에 있는 국립묘지에는 사각형의 비석이 땅에 깔려있으나 내용은 같다.

내가 태어난 KOREA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이곳 미국 국립묘지에 수많은 미국병사들의 비석에 KOREA가 새겨져 있다. 이들은 1950년 한국 6.25 전쟁에 가서 내 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다. 나이는 열아홉, 스물을 전후한 젊은이들. 그 당

시 미국은 1930년대 10년의 대공황을 지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줄을 서 식량을 배급 받아 기초생활을 유지했고 부녀자들은 가장과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고 공장에 가서 일하며 자식들을 양육해야만 했다. 남아도는 군사를 저 멀리 한국이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없으면 안 될 내 자식들을 KOREAN WAR에 바친 것이었다. 추위를 견어보지 않은 남부 출신의 군인들은 평안도 함경도의 눈보라 속에서 싸워야 했고 산이 없는 중부지방 출신의 군인들도 험준한 태백산맥을 오르고 내려야 했다.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날 때 기초가 없던 한반도에 이 미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유민주국가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평생 동안 KOREA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딱 한마디 비석에 남겼다. "KOREA 나는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젊음을 한국땅 한국전쟁에 바쳤노라"

나는 미국의 국립묘지에 이렇게 많은 KOREA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미국인의 비석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를 숙인다. 내 나라 KOREA를 지켜주신 분. 이 아들을 내보내 주시고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하신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립묘지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KOREA는 영원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다. KOREA는 한국에서 사는 한민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젊음과 생명을 바친 이들 그리고 비석에 KOREA라고 새기는 그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KOREA.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지켜보는 KOREA는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았으리라. 그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

이호성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